

## 제주 살이와 민요 사랑

- 좌혜경의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

양 영 자\*

가끔은 내가 지나치게 제주 사람이라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맑고 향기로운 공기 때문에, 며칠 여행에 진저리쳐지는 도시의 번잡한 교통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등등 갖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들이며 제주를 떠나지 못한 것이 10년이 된 듯하다. 그것은 또한 섬을 떠나 한다는 강박관념의 세월이기도 하였다. 그 사이에 제주에서 살아야만 될 몇 가지 이유들이 이미 가뭇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아직도 나는 제주 사람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좌혜경 선생의 고향에 대한 애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 사람으로서의 살이와 제주 사랑에 대한 믿음 또한 제주 사람의 무모한 애착 탓이라고 해도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서평이라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독서평 하고도 다른 좀더 전문적인 작업일 터다. 가끔 지면상에서 서평을 필자에 대한 비평으로 오해한 평자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필자의 반론, 또는 필자의 지나친 오해에서 기인한 싸움을 보아왔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저서를 평할 만큼의 능력과 자질에서 함량 미달이다. 그러므로 나의 서평이라고 해 봐야 어차피 책을 개관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말 일하기에 다소

---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의 실수나마 용서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좌혜경의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또는 광고만을 보고 구입하려는 독자가 있었다면 다소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 민요론과 민속론을 아우르면서 한국과 제주와 오키나와를 두루 섭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제주, 오키나와 각 지역의 민요와 민속론인지, 비교적인 관점의 개론서인지, 둘 다 충족시키는 책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쳐볼 책임에 분명하지만 단번에 대어가 낚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범위의 다양함과 시야의 확산이 다소 부담스럽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참 대어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기우일 뿐이다.

어떻든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이라는 제목에 대한 나의 상념은 독서가 끝나는 시점까지 무슨 그럴듯하고 감각적인 제목이 없을까 궁리하게 하였다.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은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한국민요, 제2편은 제주민요, 제3편은 오키나와민요, 제4편은 신화와 굿의례, 제5편은 민속놀이를 다루고 있다.

한국민요 편에서는 민요연구사를 고찰하였다. 시대별 민요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그 성과를 살펴, 현재까지 진행된 민요 연구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더 이상 현장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나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요가 한편의 시라고 할 때 시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화자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민요의 사설내용, 각 노래의 정서를 중시하여 문학적 표현 효과를 가져오는 화자의 운용과 시적 효과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화자의 유형에 따라서 전개되는 정서적 지향이 다르며, 창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화자가 운용됨을 예요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민요가 삶의 현장성을 살리고 정서표출의 형식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며, 시간·공간적 이동의 자유, 동

일시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을 화자의 개방성에서 찾았다.

한편, 민요의 화자에 대한 저자의 분석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민요 분석의 잣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의 입장에서는 화자 이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였다.

민요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구분하는 것은 고전적인 분류 방법이다. 한국민요의 대부분은 노동과 함께 일노래로 불려져 왔고, 양적으로도 기능요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저자는 기능요의 중요성 못지 않게 비기능요의 문학성에 주목하였던 것 같다. 사설의 특성에 따라 비기능요를 서정적인 노래, 교술적인 노래, 서사적인 노래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비기능 민요의 일반적인 성격과 유형을 살피기 위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기능요가 중점적으로 서술된 것은 민요의 현장성이 사라져 버리고 사설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요의 자체가 구비 전승적인 성격을 띄며,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한국민요의 대부분은 노동을 바탕으로 한 일노래라고 할 수 있다. 노동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요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중점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이 책이 민요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데 있지 않은가 싶다. 처음부터 민요론의 학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민요 분석과 정리, 연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쌓인 결과물이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제주민요의 7할 이상은 여성 노동요다. 여성들의 농업, 재분, 어업, 망건 등의 작업과 함께 민요가 불려졌고 전승되었다. 제주 여성들은 노래를 통하여 현실의 삶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서를 승화하여 왔다. 저자는 제주 사람들의 소리에 대한 인식, 첩, 강남, 이여도, 부모, 형제 등을 제재로 한 민요에서 제주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확인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민요를 ‘恨의 悲歌’로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주민요에 비극적 세계관만 담긴 것은 아닐 터다. 제주의 여성 민요가 대부분 서정성을 띄

며 한풀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감정을 노래한 육지의 민요에 비해 저항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민요도 눈에 많이 띈다. 어떤 작품이든 분석하는 이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민요 연구가 문학적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가족 구성 방법이나 사회·역사적 맥락, 인문·지리적 관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도 책머리에 밝혔듯이 민속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음악학 등 총체적인 문화 분석이 이루어질 때 민요 작품의 분석과 연구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민요 연구의 최종 목적은 작품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요를 통하여 구연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간 삶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 또한 신앙이나 신화, 굿,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주민요 편에서는 해녀 민속과 관련하여 해녀들의 민요를 자세히 다루었다. 저자는 해녀 작업의 성격이나 작업의 실태, 해녀들의 기원, 작업에서 나타나는 한계성과 고통이 해녀 노래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음을 위미리 민요에서 확인하였다. 해녀 노래는 제주 여성의 어떤 노래보다도 삶의 역동성과 강인함이 살아 있는 노래이다. 물질 문명의 급속한 진전과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해녀 수가 많이 감소되었지만 제주 해녀야말로 제주 여성을 상징하는 무형의 문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외국 언론에서도 해녀들의 인내력과 지구력에 감동하여 주목한 바 있고,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도 했을 때 해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주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해녀들에 의해 불려지는 해녀 노래야말로 제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이다.

오키나와민요 편에서는 저자가 오키나와에서 직접 현지 조사한 야부부락의 하치가츠오도리(八月踊) 축제 진행과정과 그때 불려지는 노래인 부시(절)를 통해서 야부 사람들의 정체성과 팔월용의 민속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진행까지 모두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축제는 오늘날 제주의 수많은 축제를 승화시키는 데 참고가 될만하다.

저자가 팔월용의 부시에 나타난 가사의 특성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노래 자체가 노동요와는 다른 유희적, 무대적 성격을 지니고 흥미 위주로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시 전편, 또는 각편이 실리지 않고 화소별로 정리되어 있어 우리 민요와 비교하며 감상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 또, 저자는 아마미 지방의 팔월용 춤을 우리의 강강술래와 비교하여 유사점을 찾고 있다. 둘 다 여성에 의해 추어지고, 농경문화적 요소를 지니며, 행해지는 시기, 후렴 방식, 춤을 추는 방식 등이 유사하여 문화의 수수 또는 보편성, 문화간 대화의 흔적을 찾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에서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은 동요와 아동 전승놀이에 관한 부분이다. 저자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전동요기, 준동요기, 동요기로 나누고, 각 발달단계에 속한 동요의 종류와 특성을 살피고 있다. 이들 동요들을 살펴보면 동요가 유희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종류로 분화되고 세련되며 발전해 감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노래와 놀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발달과업을 스스로 수행하며 잘도 커감을 알 수 있다.

어떤 화가를 알면 그 사람의 그림이나 작품세계에 더욱 친근감을 갖는다. 독자는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이 작가 주변의 일상과 아주 닮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상상하며 읽는 쓸쓸한 재미는 대부분 들어맞는다. 나는 저자가 문화적 여성 영웅 즈칭비를 이야기할 때보다, 한라문화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신화와 굿 의례를 이야기할 때보다, 동요를 이야기할 때 더욱 푸근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동요와 전승놀이에 대한 부분을 읽노라면 자기 몸에 꼭 맞는, 양증맞은 옷을 차려입고 무대에 선 당찬 여자아이와 아이의 치장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서 정겹다.

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동요들의 자취를 더듬으며 내 어린 시절의 놀

이와 노래를 직접 해보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리고 늘 조카들이 놀이의 실험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같이 놀아본 사람은 컴퓨터와 영상매체에 중독된 아이들마저도 고리타분하다거나 재미없어 하지 않고 신명나게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TV 앞에서 아이들을 불러내어 같이 놀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낀다. 함께 어울려 노는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동요와 전승놀이의 보급, 그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였다.

한국민요를 논하면서 동요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동요가 한국민요의 대표성을 떨 수 있는가 하는 오해, 아기를 재우고 달래기 위해 어른들에 의해 불러지는 자장가를 동요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다.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을 통해서 그 동안 저자가 꾸준히 민요 채록작업과 연구를 해왔고 민요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음과, 민요연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화, 무가, 해녀, 민속놀이로 영역이 확장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문화는 서로 상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독립적이고 지역적인 문화도 사실은 아주 은밀히 문화간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넘나들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제주에서 나아가 오키나와를 비롯한 주변국의 문화와 민속에까지 두루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자가 근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민요나 민속놀이, 무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머지않아 문화간 수수 관계나 문화간 대화를 밝히는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된다. 제주에 대한 관심과 고향에 대한 무모한 애착의 소산이 민요 연구로 이어졌고 그 작업이 경제적 가치로 대신할 수 없지만, 떼떽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므로 멈출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제주를 사랑하는 살이, 제주 사람을 사랑하는 살이, 제주의 민요를 사랑하는 살이, 그것은 제주 사람으로서의 숙명인 것 같다.